로컬 GPU 공급 확대로 테크 기업 AI Capex 상향 기대



Hana China Weekly | 2026.5.15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텐센트(0700.HK): 1Q26 게임 성장률 한 자리 수로 둔화, AI Capex 투자는 추가 확대 계획

- 텐센트 1분기 매출은 1,965억위안(YoY +9%)을 기록하며 컨센서스 1.5% 하회. 순이익은 581억위안(YoY +22%)을 기록하며 컨센서스 0.6% 상회. 사업 부문별로 전체 게임 매출은 642억 위안(YoY +8%)으로 중국 매출은 454억 위안(YoY +6%), 해외 매출은 188억 위안(YoY +13%) 기록. 1분기 게임 매출은 춘절 시기 이연으로 인한 매출 인식 시점 차이(실제 결제액은 십 수% 성장)에 기인해 최근 5개 분기 연속 20%대 성장률에서 크게 둔화.
- GPM은 57%(YoY +1%p)로 개선되었으나 AI 관련 감가상각 및 운영 비용 증가가 일부 상쇄. AI 투자 관련 CAPEX는 319억 위안(YoY +16%)으로 대부분 AI 인프라에 투입. 텐센트 클라우드는 GPU 용량을 외부 대여보다 내부 사용을 우선시해왔으나, 하반기 국산 GPU·ASIC 공급 확대에 따라 연산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CAPEX도 추가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 AI 수익화 전략과 관련해서는 중국 내 기업단 AI 구독 시장은 다수 사업자 간 파이 분할 구조가 될 것이라며 수익성 개선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언급. 단기적으로 광고·이커머스보다 WorkBuddy 등 고부가가치 생산성 에이전트 중심의 기업단 시나리오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

알리바바(9988.HK): 1Q26 AI 사업 관련 클라우드 매출 역대 가장 성장률 달성

- 알리바바 FY2026년 4분기 매출액은 2,433억위안(YoY +3%)을 기록하며 컨센서스 1.3% 하회. 순이익은 235억위안(YoY +90%)을 기록. 조정 EBITA는 1)즉시 배달 서비스, 보조금 지출 증가, 2)AI 인프라 및 클라우드 투자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84% 급감.
- 알리바바의 AI 관련 사업 실적이 반영된 클라우드 부문 매출액은 432.8억 위안(YoY +36%)로 AI 모델 수익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분기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성장률 달성. 1분기 클라우드 부문 제3자 상업화 매출이 YoY +40%를 기록하면서 AI 관련 제품 매출은 10분기 연속 세 자릿수 성장을 기록. 경영진은 2033년까지 데이터센터 인프라 규모를 10년 전 대비 10배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2년간도 높은 수준의 AI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언급.

SMIC(0981.HK): 2분기 출하량 증가와 ASP 회복 기대

- 1Q26 매출 25.1억USD(QoQ +0.7%, YoY +11.5%), 가이던스(QoQ 보합)에 부합하였으나 컨센서스 0.3% 하회. GPM 20.1%(QoQ -3.4%p, YoY -2.4%p), 가이던스(18~20%) 부합. GAAP 순이익 2.0억USD(QoQ -14.2%, YoY +5.0%), 컨센서스(2.1억) 7.6% 하회. 가동률 93.1%(QoQ -2.6%p, YoY +3.5%p), 출하량 250.9만장(QoQ -0.2%, YoY +9.5%), Capa(8인치 환산) 월 107.8만장(QoQ +1.8%, YoY +10.8%) 기록. 출하량은 스마트폰 부문 매출 부진에 기인해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ASP가 QoQ +9달러/장 상승하면서 GPM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
- 2Q26 가이던스로 매출 QoQ +14~16%, GPM 20~22%를 제시하며 고객 수주 증가와 재고 기반으로 매출액 전분기 대비 성장 가속화될 전망. 성숙 공정 전력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ASP 인상과 춘절 효과 소멸 후 가동률 정상화가 맞물리며 2분기부터 출하량과 ASP의 동시 회복 국면 진입 예상.

텐센트

상장 국가
중국 본토, 홍콩
섹터
반도체
시가총액(조원)
161.8

최근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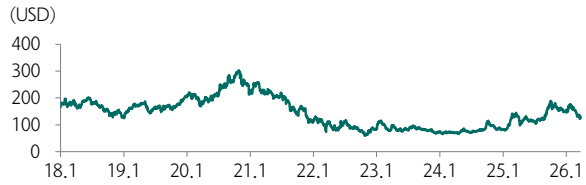
1Q26 실적 Review: 1Q26 게임 성장률 한 자리 수로 둔화, AI Capex 투자는 추가 확대 계획

- 텐센트 1분기 매출은 1,965억위안(YoY +9%)을 기록하며 컨센서스 1.5% 하회. 순이익은 581억위안(YoY +22%)을 기록하며 컨센서스 0.6% 상회. 사업 부문별로 전체 게임 매출은 642억 위안(YoY +8%)으로 중국 매출은 454억 위안(YoY +6%), 해외 매출은 188억 위안(YoY +13%) 기록. 1분기 게임 매출은 춘절 시기 이연으로 인한 매출 인식 시점 차이(실제 결제액은 십 수% 성장)에 기인해 최근 5개 분기 연속 20%대 성장률에서 크게 둔화. 온라인 광고 매출은 382억 위안(YoY +20%)으로 이커머스, 인터넷 서비스, 게임 산업 광고주 투입(수요) 증가가 매출 상승을 견인하며 20%대로 성장률 회복.
- GPM은 57%(YoY +1%p)로 개선되었으나 AI 관련 감가상각 및 운영 비용 증가가 일부 상쇄. AI 투자 관련 CAPEX는 319억 위안(YoY +16%)으로 대부분 AI 인프라에 투입. 텐센트 클라우드는 GPU 용량을 외부 대여보다 내부 사용을 우선시해왔으나, 하반기 국산 GPU·ASIC 공급 확대에 따라 연산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CAPEX도 추가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 AI 수익화 전략과 관련해서는 중국 내 기업단 AI 구독 시장은 다수 사업자 간 파이 분할 구조가 될 것이라며 수익성 개선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언급. 단기적으로 광고·이커머스보다 WorkBuddy 등 고부가가치 생산성 에이전트 중심의 기업단 시나리오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

알리바바

상장 국가
홍콩, 미국
섹터
반도체
시가총액(조원)
161.8

최근 주가 추이



1Q26 실적 Review: 1Q26 AI 사업 관련 클라우드 매출 역대 가장 성장률 달성

- 1Q26CY(4Q26FY) 매출은 2,433억위안(YoY +3%)을 기록하며 컨센서스 1.3% 하회. 순이익은 235억위안(YoY +90%)을 기록. 알리바바의 AI 관련 사업 실적이 반영된 클라우드 부문 매출액은 416억 위안(YoY +38%)로 AI 모델 수익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분기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성장률 달성. 1분기 클라우드 부문 제3자 상업화 매출이 YoY +40%를 기록하면서 AI 관련 제품 매출은 10분기 연속 세 자릿수 성장을 기록. 알리바바 산하 T-Head 자체 개발 GPU 칩이 대규모 양산에 진입해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에 실질적 기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 경영진은 2033년까지 데이터센터 인프라 규모를 10년 전 대비 10배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2년간도 높은 수준의 AI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언급.
- 조정 EBITA는 5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326억 위안 대비 84% 급감. 이익 급감의 핵심 요인은 두 가지로 1) 즉시 배달 서비스, 보조금 투입 확대로 인해 중국 이커머스 집단의 이익이 대폭 축소, 2) AI 인프라 및 클라우드 투자 확대에 기인.

SMIC

상장 국가
중국 본토
섹터
반도체
시가총액(조원)
161.8

최근 주가 추이



1Q26 실적 Review: 2분기 출하량 증가와 ASP 회복 기대

- 매출액 25.1억USD(QoQ +0.7%, YoY +11.5%), 가이던스(QoQ 보합)에 부합하였으나 컨센서스 0.3% 하회. GPM 20.1%(QoQ -3.4%p, YoY -2.4%p), 가이던스(18~20%) 부합. GAAP 순이익 2.0억USD(QoQ -14.2%, YoY +5.0%), 컨센서스(2.1억) 7.6% 하회.
- 지역별 매출의 경우 중국 22.3억USD(QoQ +2.2%, YoY +17.6%), 미국 2.4억USD(QoQ -9.1%, YoY -17.7%), 유라시아 0.5억USD(QoQ -13.7%, YoY -35.3%)을 기록. 미국 지역 매출의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 관련(퀄컴 등 미국 팹리스의 위탁 생산)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스마트폰 수요 둔화가 미국 지역 매출 하락에 직결된 것으로 추정.
- 가동률 93.1%(QoQ -2.6%p, YoY +3.5%p), 출하량 250.9만장(QoQ -0.2%, YoY +9.5%), Capa(8인치 환산) 월 107.8만장(QoQ +1.8%, YoY +10.8%) 기록. 출하량은 스마트폰 부문 실적 부진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ASP가 QoQ +9달러/장 상승하면서 GPM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 스마트폰 매출 비중은 18.9%로 2021년 이래 최저치까지 하락. 반면 산업/차량용 비중이 14.0%로 확대되며 제품 믹스 변화가 확인.
- 2Q26 가이던스로 매출 QoQ +14~16%, GPM 20~22%를 제시하며 고객 수주 증가와 재고 기반으로 매출액 전분기 대비 성장 가속화될 전망. 성숙 공정 전력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ASP 인상과 춘절 효과 소멸 후 가동률 정상화가 맞물리며 2분기부터 출하량과 ASP의 동시 회복 국면 진입 예상.

전기차/이차전지

BYD(1211.HK): Yuan Plus 전기 SUV 출시 예정

- 5/12 BYD가 3세대 위안플러스(Yuan Plus/해외명 Atto 3) 컴팩트 전기 SUV를 5/21 공식 출시할 예정. 지난달 베이징 모터쇼에서 데뷔한 동 모델은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플래시 충전(10%→70% 약 5분)을 탑재하고, 57.5kWh와 68.5kWh 두 가지 배터리 옵션을 제공. 루프 마운트 LiDAR와 자체 개발 'God's Eye' ADAS를 장착하며, 현행 2세대 스마트 드라이빙 에디션 시작가(11.58만 위안)와 유사한 가격 경쟁력이 예상.
- 5/13 BYD 서브브랜드 팡청바오가 하드코어 오프로드 SUV Bao 8(41.98만위안~)과 Bao 5(30.58만위안~)의 플래시 충전 에디션을 출시. 팡청바오 전 4개 모델이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와 플래시 충전 적용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
- 5/9 BYD가 선전에서 중국 최대 렌터카 업체 차이나오토렌탈과 MOU 및 10만대 차량 구매 프레임워크 계약을 체결. 계약에 따라 전국 신저우렌터카 매장에 BYD 플래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 탑재 NEV를 대규모 렌탈 플릿에 도입.

샤오펑(9868.HK): 유럽 내 공장 인수 협의 중

- 5/14 FT의 자동차 컨퍼런스에서 샤오펑 북동유럽 MD 엘비스 청이 폭스바겐 등과 유럽 내 공장 인수를 협의 중이라고 공개. 현재 오스트리아 마그나슈타이어 공장에서 G6·G9를 위탁 생산(2025년 9월~) 중이나 생산 라인 캐파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연간 75만대 감산 및 유럽 내 추가 50만대 캐파 축소를 추진하며 유휴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양사 간 시너지가 기대되나, 샤오펑 측은 VW 공장이 다소 노후하다며 신규 건설도 병행 검토 중.

리오토(2015.HK): Li i6가 전체 인도량 견인

- 5/12 리오토의 4월 모델별 인도 내역이 공개. 총 34,085대(YoY +0.43%, MoM -16.97%)로 소폭 성장에 그침. BEV SUV Li i6가 21,024대로 전체의 61.7%를 차지하며 절대적 판매 주력으로 자리잡은 반면, EREV 라인업인 L시리즈는 전반적으로 부진, 특히 L9은 452대(YoY -88.1%, MoM -70.8%)로 급감.

CATL(3750.HK): AI 활용 배터리 R&D 가속 현황 공개

- 5/13 CATL 수석과학자가 선전 제18회 중국국제배터리전시회 개막식에서 AI를 활용한 배터리 R&D 가속 현황을 공개. AI 모델을 통해 대량의 후보 물질을 사전 스크리닝함으로써 신소재 탐색 시간을 기존 대비 100분의 1로 단축했으며, 양극 코팅·고전압 전해질·페로브스카이트 패시베이터 등 핵심 소재 전반에 적용 중. 전고체 배터리 R&D에서도 AI로 3개월 만에 7개 타깃 소재를 도출하고 이온 전도도를 개선하는 성과를 달성. 향후 AI 대형 모델 기반 자율 실험실(현재 소재 합성 수요의 70~80% 자동 처리)을 고도화해, 지능형 설계에서 완전 자율 검증까지의 효율 도약을 목표로 제시.

반도체

SMIC(0981.HK): 엔비디아 H200 구매 허가에 주가 하락

- 5/14 미국이 알리바바, 바이트댄스등 약 10개 중국 빅테크에 엔비디아 H200 구매를 허가(기업당 최대 75,000개)했다는 로이터 보도에 국산 반도체 대체 모멘텀이 약화되며 5/14 주가는 3.6% 하락 마감. 다만 아직 실제 칩 인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판매 대금의 2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과 미국 내 중계 출하 요건이 부과됨. 최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아키텍처(Blackwell·Rubin)은 여전히 수출 제한 대상으로 '제한적 완화'에 그친 점에 주목.

룽신테크놀로지(688047.SH): CPU 3A6000 누적 출하량 100만개 돌파

- 5/13 중국 자체 CPU 설계 업체 룽신이 플래그십 데스크톱 프로세서 3A6000의 누적 출하량 100만개를 돌파. 해당 칩은 자체 개발 LoongArch 명령어셋 아키텍처(ISA), 독자 IP 코어, 국산 제조 공급망으로 구축되었으며, 인텔 2020년경 데스크톱 프로세서와 유사한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플랫폼/테크

바이트댄스(비상장): AI 투자 기존 대비 25% 상향 전망

- 5/9 SCMP는 메모리 칩 원가 상승 및 AI 사업 전개 가속화에 따라 2026년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기존 대비 25% 상향한 2,000억위안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도. 2025년 AI 올인 투자로 순이익이 70% 이상 급감했음에도 추가 증액에 나선 것으로, 더우바오 MAU 약 3.5억 명, 틱톡샵 GMV YoY +70% 등 AI 기반 사업의 외형 확장이 투자 확대를 뒷받침함.

딥시크(비상장): 외부 자금 조달 500억위안 유치 추진 중

- 5/8 딥시크가 첫 외부 자금 조달에서 최대 500억 위안(73.5억달러)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투자 후 기업가치는 3,500억 위안(약 515억달러)을 돌파할 전망. 4월 초 100억달러에서 5/8 515억달러로 불과 3주 만에 추정 밸류에이션이 5배 급등. 창업자 량원펑이 본 라운드의 최대 출자자로 개인 최대 200억 위안(전체의 40%)을 투입할 계획.

알리바바(9988.HK): AI 플랫폼 Qwen과 타오바오 통합 추진

- 산하 AI 플랫폼 Qwen과 이커머스 플랫폼 타오바오의 통합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 기존 키워드 검색 중심의 쇼핑 경험을 대화형 AI 쇼핑으로 전면 재편하는 것이 핵심으로, 사용자가 자연어로 니즈를 설명하면 AI 에이전트가 상품 추천, 비교,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구조. 앞서 발표한 '천원샤오주워'와 3월 설립한 ATH(Alibaba Token Hub) 사업군을 통해 모델·앱·결제 생태계를 통합하는 전략이 가시화되며, 이커머스의 검색에서 에이전트로의 전환이 전환율·객단가에 미칠 영향에 주목.

콰이쇼우(1024.HK): 커링AI 분할 상장 검토 루머에 급등

- 5/12 산하 AI 영상 생성 모델 커링AI의 분할 상장 검토 보도에 장중 최대 +11%까지 급등한 뒤 +1.9% 상승 마감. 콰이쇼우는 당일 오전 항교소 공시를 통해 커링AI 관련 자산의 구조조정 및 외부 자금 유치 방안을 검토 중이나 초기 단계이며, 최종 계약은 미체결이라고 확인.

바이두(9888.HK): 쿤룬신 칩을 Ernie 5.1에 적용 완료

- 5/12 바이두가 산하 쿤룬신 칩을 자사 차세대 대형 모델 'Ernie 5.1' 트레이닝에 적용했다고 밝히며 주가는 2.5% 상승 마감. Ernie 5.1은 2.4조 파라미터 Ernie 5.0 기반으로 총 파라미터를 약 1/3, 활성 파라미터를 약 1/2로 압축하면서도 업계 동규모 모델 대비 프리트레이닝 비용을 6%로 절감한 것이 핵심 차별점. Arena Search 랭킹에서 글로벌 4위·중국 모델 1위를 기록하며 DeepSeek V4-Pro를 상회하는 에이전트 능력도 확인됨.

01.AI(비상장): Pre-IPO 자금 조달 진행, 홍콩 상장 준비 중

- LLM 스타트업 01.AI가 Pre-IPO 자금 조달을 진행하며 H주 상장을 준비 중이라는 루머가 확산. 2025년 초 대형 모델 프리트레이닝에서 철수하고 AI 응용/B2B 솔루션으로 피봇한 바 있으며, 해외 생산성 도구 PopAi(사용자 약 천만 명)와 '만지(万知)' 등 C/B단 제품을 운영 중.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유일한 공개 투자자인 가운데, 중국 AI 스타트업의 홍콩 IPO 러시 확대 여부에 주목.

유니트리(비상장): 양산형 유인 메카 390만위안에 공개

- 5/12 유니트리가 세계 최초 양산형 유인 메카(탑승형 변형 로봇) 'GD01'을 390만 위안(약 57.4만달러)에 공개. 탑승자 포함 총중량 약 500kg으로 2족 보행과 4족 형태 간 변형이 가능한 민간용 차량으로 정의. 지난주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앱스토어 'UniStore'를 개설하고, 4월 말에는 듀얼암 휴머노이드 로봇(2.69만위안~)을 출시하며 베이징 왕푸징에 첫 오프라인 직영 매장도 개점하는 등 소비자 시장 공략을 가속.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현황

편입 종목	주간 수익률 (%)	PER (배)	ROE (%)	매출(YoY, %)		순이익(YoY, %)		EPS 성장률 (%)	EPS 변동률 (%p)	실적 발표일
				2025E	2026E	2025E	2026E			
텐센트(0700.HK)	(1.7)	13.1	19.6	10.5	9.9	6.7	11.7	27.6	(0.6)	(1.7)
알리바바(BABA.US)	3.8	20.3	8.6	10.6	12.2	(6.7)	39.6	129.8	(8.8)	3.8
징동(JD.US)	2.9	10.3	11.4	6.1	6.3	27.1	44.3	42.9	6.1	2.9
트립닷컴(9961.HK)	(2.5)	12.1	9.8	13.6	13.0	(47.0)	15.5	(38.5)	0.0	(2.5)
텐센트뮤직(TME.US)	0.3	9.0	11.3	8.5	8.9	(15.5)	8.8	18.8	(0.7)	0.3
콰이쇼우(1024.HK)	16.8	10.9	16.7	4.3	6.8	(22.9)	18.3	(7.1)	(0.2)	16.8
하이얼스마트홈(600690.CH)	(0.2)	9.6	16.1	4.1	5.1	8.0	9.5	6.0	(0.3)	(0.2)
샤오미(1810.HK)	4.1	21.4	11.2	7.9	16.6	(24.7)	33.7	(0.1)	(0.6)	4.1
레노버(0992.HK)	15.2	12.1	26.5	16.2	8.5	21.8	5.3	11.6	0.0	15.2
팝마트(9992.HK)	5.2	11.9	50.1	19.8	16.4	13.7	18.2	15.9	(2.3)	5.2
미니소(MNSO.US)	(2.2)	10.2	24.9	18.8	15.3	124.0	16.5	156.2	0.1	(2.2)
BYD(1211.HK)	0.7	18.5	15.1	14.7	10.1	24.4	26.1	34.4	(0.2)	0.7
샤오펑(9868.HK)	(0.4)	-	(4.0)	25.1	25.0	적지	흑자	적지	31.2	(0.4)
CATL(300750.CH)	2.3	20.3	24.8	43.7	20.5	32.6	22.7	40.0	(0.2)	2.3
양광전력(300274.CH)	4.8	20.2	26.9	18.6	17.7	20.6	19.8	21.5	0.3	4.8
북방화창(002371.CH)	6.7	50.9	18.7	27.7	26.8	50.9	38.8	53.1	(1.1)	6.7
SMIC(0981.HK)	8.2	72.2	4.4	19.3	16.7	41.4	33.1	43.2	1.1	8.2
해광정보(688041.CH)	17.9	152.4	18.2	55.2	38.1	89.3	44.4	81.0	0.0	17.9
통푸마이크로(002156.CH)	18.3	55.2	9.2	15.0	13.8	28.6	23.6	71.4	0.0	18.3
폭스콘산업인터넷(601138.CH)	4.7	21.6	30.4	67.5	29.4	75.9	30.5	80.0	(0.6)	4.7
중지쉬창(300308.CH)	9.6	45.2	56.2	128.3	51.5	146.7	50.5	139.1	0.0	9.6
포니AI(PONY.US)	(10.7)	-	(16.0)	52.2	119.2	적지	적지	적지	0.0	(10.7)
위라이드(WRD.US)	1.7	-	(22.7)	57.3	89.2	적지	적지	적자	-	1.7
허사이테크(HSAI.US)	2.0	40.6	6.7	44.9	37.6	25.9	60.8	32.7	0.5	2.0
호라이즌로보틱스(9660.HK)	(2.6)	-	(26.5)	60.7	60.4	적지	적지	적지	0.0	(2.6)
킹소프트(688111.CH)	8.3	47.5	17.0	19.3	18.8	39.6	8.9	33.4	0.0	8.3
중신증권(6030.HK)	0.4	9.1	11.6	(16.7)	9.0	23.8	10.7	27.3	0.0	0.4
평균	4.2	30.2	13.9	27.9	26.0	29.8	25.7	44.4	0.9	

주1: PER, ROE, EPS 성장률은 전망치 기준, EPS 변동률은 전주대비 기준, 플랫폼 기업 Non-IFRS 기준, 홍콩 상장 종목은 반기 및 연간 실적만 발표,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예상치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5월 15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는 2026년 5월 15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